

# ‘벼랑 끝’ HDC현산, 광주 참사 책임론 확산

회사 신뢰도·브랜드 이미지 추락 예정된 사업, 막대한 차질 예상 광주시, 공공사업서 배제 검토

HDC현대산업개발이 연이은 대형 사고에 청사 최대 위기를 맞았다.

회사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주락한 가운데 HDC그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HDC현산에 따르면 정 회장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광주에 내려가 사태 수습을 지휘 중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사고 현장을 찾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공언했지만 다시 한번 벌어진 사고로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유병규 대표이사는 사고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 회장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고 때처럼 전면에 나와 사과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DC현산 관계자는 “(정 회장이) 입장표명을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1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뉴스1

며 “사고 수습 등 현장을 행기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회사의 향후 사업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장 해당 사업자의 입주 지역이 예상된다. 안전진단 결과 사고가 난 201동은 물론 전체 철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이미 투입된 비용과 기간이 물거

풀이 되고 입주자들에게 입주지연보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사고 여파는 단지로도 옮겨붙고 있다. 광주 최대 재건축단지인 윤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이 HDC현산과의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지어지고 있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 명칭에서 ‘아이파크’를 제

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신규 수주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광주시는 아예 공공사업에서 이 회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일정기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NS단체 채팅방에선 시공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커뮤니티 채팅방에선 ‘시공사 교체 전면 검토해야 한다’ ‘향후 분양·입주·안전을 고려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을 교체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7개월 전 붕괴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에서도 재개발 집행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각도로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주요 건설사들에 대한 사업 참여 의사 태도▲의견수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요구 등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 지역 이모저모

### 전남,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 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올해부터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해당 30만~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영양군, 오늘부터 신청·접수

영양군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 받는다.

1차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신청은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중소벤처 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구매영수증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 ‘광주 도심에 산림 복지’ 도시숲 조성에 205억 투입

광주시, 미세먼지 차단숲 등 마련  
자치구와 협의 거쳐 대상지 확정

광주시가 올해 예산 205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 숲 등 10개 사업을 통해 도시숲 30곳을 조성한다.

이 중 미세먼지 차단숲 등 5개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의 기후 대응기금 등 모두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구 광주철도 주변 등 미세먼지 차단숲 3곳 ▲운천초교 등 자녀안심 그린숲 2곳 ▲문화전당역 등 생활밀착형 숲 2곳 ▲상무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스마트가든 4곳이며 ▲도시바람길 숲은 자치구와 협의 후 대상지를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숲 조성 등 5개 사업은 시비로 추진되며, 18곳에 35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5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소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조사한 후 제출한 올해 5

개 사업 대상지 36곳 중 18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계립동 1815번지 등 녹지 한 평 늘리기 8곳 ▲회재로(제2순환로~매월유통센터) 녹도 1곳 ▲효천중앙로(미로공원~효천1로) 등 가로숲길 4곳 ▲광주동초교 등 학교 내 미래숲(명상숲) 4곳 ▲양과동 213-1번지 정원조성 1곳이며,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소위는 전문가·시민단체·주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후 관리 편의성 등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종합 평가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권에서 쉬고,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숲이 미세먼지, 폭염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 부산시-국방벤처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개발·납품 등 전 과정 지원

부산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부산 국방벤처센터(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국방분야 기업의 군 납품 규모가 112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비 367억원 확보와 589명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2008년부터 부산국방벤처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과 국방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 국방과제 발굴, 기술 지원, 교육, 홍보 및 판로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부산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돋고 있다.

부산국방벤처센터는 부산지역 내 협약기업이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비 지원 개발과제 공모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단계부터 전시, 기술지원 등 개발과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협약기업(59개 사)들이 국비 367억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589개를 유지·창출했으며, 2008년 설립 이후 작년까지 국비 1042억원, 일자리 24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성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북도,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 나서

####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서 제출

경북도가 올해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는 문경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문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연탄 생산지이자 과거 한반도 주요 조산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백두대간 옛길의 숨은 이야기를 품은 곳이다.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는 문경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

며 912㎢의 면적과 돌리네습지, 석탄 박물관(은성탄광 석탄채굴지), 베바위 등 모두 11개의 지질명소를 포함한다.

경북도는 올해는 후보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까지는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나뉘는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의성군, 외국인 통역지원사업 범위 확대

#### 코로나 영향 통역 요청사례 급증

경북 의성군은 외국인 통역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백신접종 안내 관련 통역 요청 사례가 급증했다.

통역지원이 가능한 외국어는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해 총 8개국 언어이다. 통역요청서를 제출하면 의성군 경제투자과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 및 통역요원 일정조정 등을 검토한 후 통역사를 소개한다.

/경북=김태우 기자

### 광주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57곳 특별 안전점검 시행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학교 공사현장 57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펼친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 내 학교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점검반은 시교육청·안전총괄과·안전관리자·학교시설지원단·외부전문가(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등 민관 합동으로 편성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현장 시설물 안전 여부·거푸집 동바리 정품 사용 여부·현장 감리자와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비계 설치 상태·화재예방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교육청은 점검 결과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지적 사항은 현장 시정과 즉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대한 지적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업종 조처한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괴남기 과장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